

# Science and Change Hopes and Dilemmas

## 參席하고 돌아오기까지 見聞記

科總會長 金 允 基

### ◎ 머릿말

AAAS는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略稱이며 우리말로 翻譯한다면 「미국과학진흥협회」라고 할 것이다.

AAAS는 쉽게 말해서 韓國科學技術 團體 總聯合會와 大體로 비슷한 機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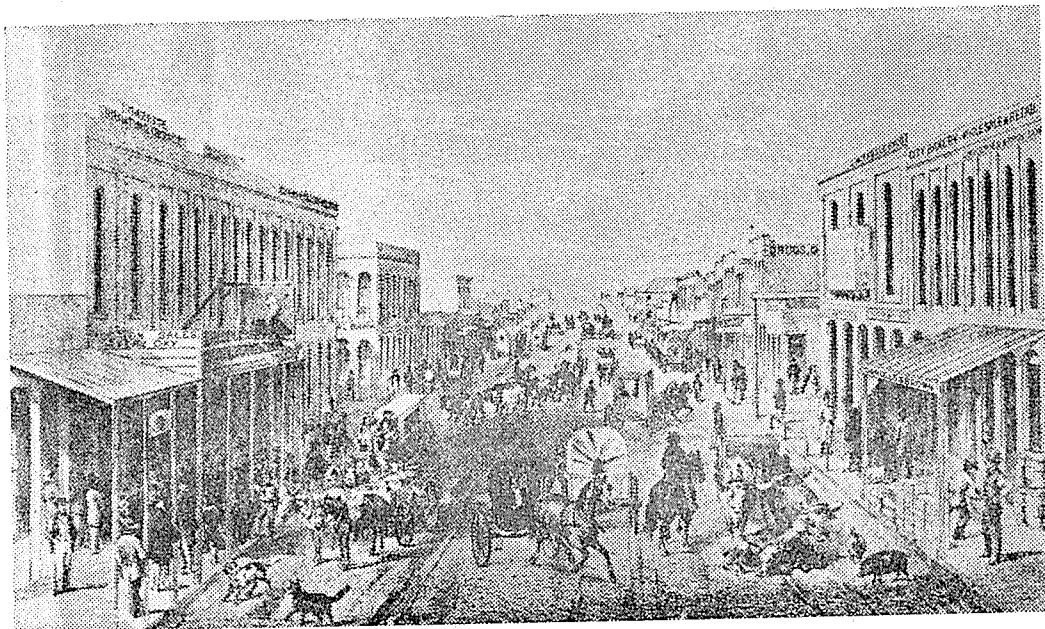
1848년에 創立된 AAAS는 一般科學學會와 113,000餘名の 個人會員으로 構成되어 있는 世界的인 科學團體이다.

우리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가 AAAS와

緊密한 紐帶를 맺게된 것은 1976年 5月 18日 첫 交信으로 始作되었다 AAAS와 科總會는 姉妹結緣을 이루게 되어 AAAS는 科學技術에 關한 文獻 書籍과 錄音 Tape를 보내오고 있으며 우리는 「과학과기술」誌를 보내주고 있다.

1976年 가을에 AAAS로부터 今年度 143次 年例會議에 科總會長이 參席해 달라는 招請을 받게 되어 이번 會議에 가게 되었다.

會議은 1977年 2月 21日부터 25日까지 美國 DENVER에서 開催되었다. 科學技術處에서 支援해 주어 會議에 參席케 된데 對해 이機會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



코로라도 덴버의 블레이크 거리 옛모습

◎ 出國하기까지

國外에 旅行을 하자면 여러가지 節次를 밟게 된다. 첫째 旅券을 發給받아야 되고 出國手續을 해야 되며 旅行에 必要한 敎育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手續을 미리미리 해둬야 되며 出國前에 外換銀行에서 外貨를 交換해야 된다.

多少 煩雜스러움이 있어 조금 簡素化했으면 하는 느낌이 든다.

航空券과 宿泊 Hotel等的 豫約을 해야하고 空港에 가서 出國手續 等에도 神經을 잘 써야한다 信用 있는 旅行社에 付托하면 도움이 된다. 旅行國에 對한 事前의 知識을 갖도록 하면 安心이 될 것이다.

旅行 日程과 經路

Route	Dep/Ar	Date	Time	Flight	Remarks
Seoul	Dep	17/Feb	21 : 40	KE006	
Losangeles	Ar/Dep	21/Feb	19 : 40 11 : 45		International
Denver	Ar/Dep	25/Feb	14 : 43 12 : 00	UA166	Dulles
Washington	Ar/Dep	27/Feb	15 : 00 10 : 00		
Newyork	Ar/Dep	01/Mar	17 : 00 10 : 20	UA 55	Dulles
Losangeles	Ar/Dep	02/Mar	12 : 50 09 : 00		International
Tokyo	Ar/Dep	03/Mar 05/Mar	16 : 40 18 : 00	KE 502	
Seoul	Ar	03/Mar 05/Mar	20 : 10		Kimpo

註 : Dep.는 出發  
Ar.는 到着  
KE는 KAL 大韓航空  
大韓航空 就航地는 支部 KAL을 利用

出發 到着地와 그 時間 및 航空機種類, 비행장명을 記錄한 것은 旅行者의 參考가 될가하여 기록하고 時間은 時差가 있다는 것을 添記하는 바임.

◎ 환 영 사

美國의 最大科學協會인 年例總會에 參席한 여러분들을 衷心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總會中에는 每日 16個의 學術發表가 同時에 實施되므로 여러분은 어떤 會期에 參席할것인가를 決定하는 것도 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같이 AAAS는 專問學會가 아니므로 學術發表는 科學, 技術, 科學政策에 關한 廣範圍한 題目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總會의 特性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自己分野外의 다른 分野를 理解할 수 있고 더 광범위한 科學政策의 問題를 理解할수 있는 다시없는 機會가 될것임



회장 윌람 맥크엘로이

니다.

오늘날 우리社會는 科學研究와 技術의 產物입니다. 그리고 우리社會의 未來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科學技術이 무엇을 開發할 것인가에 크게 左右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때 우리들 科學技術人의 責任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이번 總會의 主題를 科學과 變遷 希望과 딜렘마라고 한 것입니다.

이번 總會를 準備하기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役員들과 職員들의 勞苦를 치하하며 여러회원 諸位에서는 學術發表會에서 그리고 이곳 멤버의 아름다움에서 많은 有益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美國科學振興協會 會長 윌람 D 맥크엘로이

本委員會에서 다룬 案件은 다음과 같다.

◎ AAAS 會議參席 概要

會議場所인 Denver市 Hilton Hotel에 到着한 것은 2月 21日 下午 4時 30分이 었다. 事務處에 登錄을 하고 名牌를 받았다. 곧 客室에 案内되어 짐을두고 Dr. Tinker를 만났다.

下午 6시에 ROOM에서 外國에서 온 代表들의 人事 紹介가 있었고 이어서 7時 Room에서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라는 題目의 分科委員會에 參席하였다. 무척 진지한 討論이 展開되어 저녁食事も 잊은채 9時頃까지 進行되었다.

- ① The Emergence of Critical Science
- ② Changing Perceptions of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 ③ public participation in the Issues: Asilomar and Its Aftermath
- ④ Issues of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in precollege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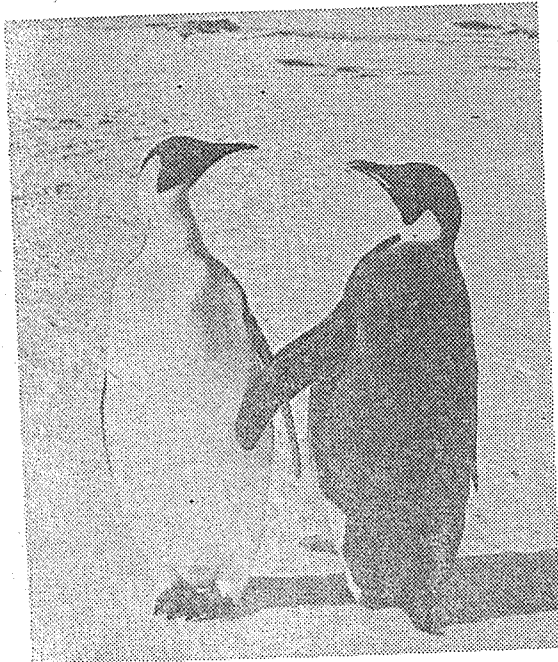
여러가지 事例에 關한 討議가 進行 되었으나 次期會議에서 再論기로 했다. 10名이 모인 가운데 2名이 女子科學者였던것이 peculiarity였다 나는 첫번째라 어리둥절 했다 첫날은 이렇게 보냈다.

이번 會議 概要로는 總 16個分野에 121個 演題와 演士가 參與했으며 22個 國에서 3,850名이 參席한 mammoth大會라고 하겠다.

本人은 主로 에너지分野 特히 Solar Energy에 關心을 갖고 參席했고 ○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와 Science and public policy分野의 Scientist and Congress: Making a Difference를 들어 보았다.

그런데 Solar Energy in 20th Century에 聽講하는 사람이 第一 많았고 人氣가 있었다. 聽講者는 年老 中年 年少 夫人層이 多樣하게 있었고 全部가 熱心이었다. News, information 展示會等 興味로웠고 모든 運營이 잘 訓練되어 있었다. 그리고

- ◎ Biological Science
- ◎ Agriculture and Ecology
- ◎ Medicine and Health



南極의 황제 펠컨

◎ Economic and Social sciences

等 分野에도 關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經濟社會科學 分野 保健 衛生分野를 包含하여 綜合的인 大學術會議로 生覺되었다.

分野別로 課題를 列記하면

**主題 : Science and Change:Hopes and Dilem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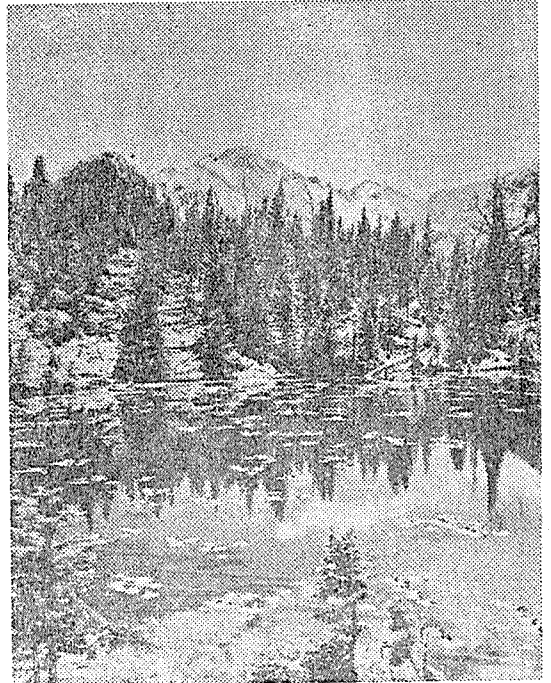
1. General Interest (6課題)
2. Physical and Mathematical Sciences (8課題)
3. Energy (8課題)
4. Resource Policy (7課題)
5. Biological Science (7課題)
6. Agriculture and Ecology (6課題)
7. Environment (8課題)
8. Arid Lands (5課題)
9. Medicine and Health (11課題)
10. Anthropology (8課題)
11. Technological Implication (6課題)
12. Behavioral Science (10課題)
13. Education (7課題)
14. Economic and Social Science (6課題)
15. Science and public policy (9課題)
16.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9課題)

이러한 數 많은 分野와 課題에 本人 單한사람으로서 몇 分野만 부지런히 參與하고보니 외롭기도 하였고 적어도 2,3인이라도 同行했으면 여러분야의 분위기과 美國의 科學技術動向과 世界各國의 動向을 좀더 仔細히 살필수가 있을 것을 하고 느꼈다.

講演은 上午 9時부터 各分野가 開始되고 下午 3時부터 다시 繼續되며 夜間은 下午 8時 30分부터 public lecture가 始作되어 一般人士도 參與하는 意味있고 能率的인 會議運營을 하고 있었다.

演士의 講演內容은 print하지 않고 錄音을 해서 Cassette 하나에 9弗式 販賣하거나 豫約을 하면 追後 送付해 주게 되어 있었다.

文人은 Solar Energe 錄音 Cassettes 4個를



코로라도州的 景致

36弗을 주고 사왔다(科總에 保管).

參加會員은 大部分 Hilton Hotel과 Holiday-inn 두 Hotel에 投宿하고 講議室도 隣接한 兩 Hotel에서 하기 때문에 더욱 便利하게 마련 되었다.

附記 Denver는 海拔 5,500尺(1650m)의 高原地帶로서 Rocky山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좋은 觀光都市로서 人口 150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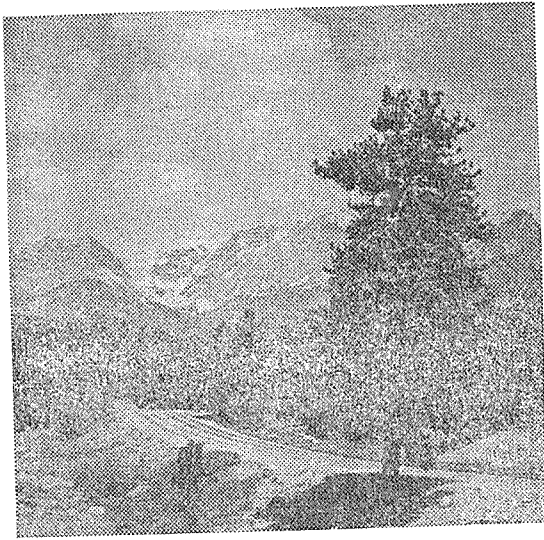
Water shortage로 乾燥해서 목이 쉰쉰했다.

◎ 旅行中 만난 사람들

外國에서 우리 同胞를 만나게 되면 정말 반갑다. 더욱이 혼자서 旅行할때는 한층더 반가움다

△ Denver에서 吳仁基 博士를

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 Denver 支部長 吳仁基 博士가 2月 23日 下午 6時. Hotel Lobby에서 만났다. 彼此 初面이지만 곧 서로 알게 되어 吳博士宅에 가서는 晚餐招待를 받고 즐거운 時間을 갖었다. 夫人과 귀여운 두애기가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다. 특히 夫人의 불고기, 김치, 요리



던버 近郊의湖水

솜씨는一品이었다. Denver에는 4,5천餘名の僑胞가 있고 20餘名の 우리 科學者가 있다한다 原子力을 研究하는 科學者가 있다고 하며 歸國하면 韓國原子力研究所長 尹容九 博士에게 傳言해 달라는 付託을 받았다.

△ Washington에서  
金浩吉博士와 趙庚穆  
科學官을

金浩吉博士는 在美科學技術者協會의 次期 會長이고 駐美大使館 趙庚穆 科學官은 本國 科學技術處 振興局 振興課長이 었다 두분과 반가운 대화를 가졌다.

Boston에 있는 在美科協 卞鍾和 博士와는 電話로만 通했다.

本人은 Denver의 AAAS 會議參席에 關한 이야기를 하였다. 金博士는 在美科協本部가 Washington에 常設事務所를 두기로 했고 本國連絡事務所는 科學技術會館에 두되 事務員은 科總職員

이 兼職하기로 協議 約束되었다. 金博士는 物理를 專攻한 碩學이다.

I,B,R,D에 있는 黃博士 內外分도 만났는데 黃博士는 Africa 擔當 地域開發을 擔當하고 있다 한다.

△ 2月 28日 AAAS 本部를 訪問

趙 科學官과 함께 AAAS 本部를 訪問 하여 Dr. Tinker를 만났다 앞으로 더욱 相互協調를 鞏固히 하자는 뜻을 나누고 科總의 새마을 技術奉仕團 活動狀況을 들려주고 팜프렛을 手交했다 本人은 韓國大學校 教授級 團員들이 總動員 自進하여 科學技術, 知識을 農漁民에게 指導해주고 있음을 說明해 주었다.

Dr. Tinker는 1978年 AAAS는 Washington에서 開催할 것이니 韓國에서도 많이 參席하기를 希望한다고 했다.

△ Newyork에서 鄭周求 現代그림 會長一行을 만나

Washington에서 2月 27日 10時 I,B,R,D에 勤



러키山脈 국립公園

務中인 長男 鐸一과 飛行機에 올랐다. 11시에 N.Y.에 到着했다(每時마다 Air Bus가 있다). N.Y.에 到着 即時 乘船, 平和의 女神像을 求景하고 elevate를 塔乘 N.Y.을 眼下에 보고 내려와 家兒의 後輩인 李博士가 運轉하는 自動車로 點心을 하러 三福亭(韓式食堂)에 갔다. 그자리에 마침 鄭周永會長 鄭文道社長(前 E.P.B 次官補) 一行을 만나 亦是반갑고 즐거운 한때를 지냈다.

△ 求景 몇군데

아무리 日程이 Tight 하다고 해도 볼것은 다 보아야겠다. Denver에서는 24日 下午 1時~5時까지 Rocky 山脈의 National Park의 一部를 求景했다. 海拔 7,335尺까지 2次線, 鋪裝된 道路를 꼬불 꼬불 頂上까지 올라 雪景과 Red Rock Park, Ever Green 등을 보고 山頂에서 博物館 Coffee Shop을 둘러 선물판매소에서 그림 葉書 몇장을 샀다. 멀리 Denver를 내려다 보니 氣分이 좋았다. 乘하여 25日 上午 7時 30分 National park Service를 訪問, 많은 資料를 얻었고 管理局長과 歡談을 갖었다.

지난해 美國의 National park를 찾는 사람이

232,000,000名이라고 한다.

○ Washington은 memorial Tower 555尺이다 Elevate에 올라 한눈에 Washington을 求景하고 Capital White House, Water gate, 케네디 Center等 아름다운 Washington D.C. Green과 물과 Bldg와의 調和된 音都를 注意깊게 보았다.

○ N.Y 平和의 女神, Empire Bldg UN Bldg等 7時間에 다본 셈이다. Washington이나 N.Y의 中心街에는 自動車 parking이 큰 問題인것 같았다.

△ 歸路에 日本 東京에,

Washington→L.A.→Honolulu→Tokyo 긴 旅行이다. 3月 3日 下午 4時 30分 東京羽田國際空港 到着 即時 Hilton Hotel에 投宿하고 翌日 4日 上午 10時 東京設計事務所를 訪問했다 47年前 卒業한 大學同窓 富塚卓元專務를 만나고 石龜社長 發電所設計室을 두루 보았다.

下午 2時에 野村 綜合研究所를 鎌倉까지 往復 3時間이 所要, 1時 30分間 研究所를 視察했다. 5萬坪 垡地에 450名의 研究員의 活動과 特殊 施設等 運營狀況의 說明을 들었다. 77年度 43億엔 豫算이라 한다. 밤에는 49年前 卒業한 同期生 5名이 모여 49年前 大學時節의 懷古談 이야기로 時間을 보냈다. 高齡이지만 모두 氣運이 좋았다 모든것을 豫定대로 計劃대로 움직이고 5日 大韓 航空便으로 밤 8時 金浦空港에 到着했다. 16日 만에 祖國의 땅을 밟게 되었다.

收集된 資料도 若干있고 滋味있는 이야기도 若干있지만 會습이나 만나는 자리에서 斷片的으로 對話로 報告할 수 있다고 生覺하여……이만 줄인다 亂筆을 諒解해주시기 바란다.

1977年 3月 13日 記



레드록크의 야외극장